출소 6개월만에 또 성추행

광주 대낮 아파트서 여중생 덮치려던 20대 검거

동일전과 5범 불구 감시대상서 제외

강제추행죄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만기출소한 20대 회사원이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직원인 홍모(27·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다 귀가하던 모여중 3학년생 A양(15)을 보고 뒤쫓아갔다. 200m를 뒤따라간 홍씨는 A양이 아파트 1층 승강기를 타려는 순간 뒤에서 껴안은 채 끌어냈다.

승강기 앞에는 단둘 밖에 없었다. 홍씨는 A양을 승강기 앞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거세게 반항하자 허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A양이 몸부림치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놀란 홍씨는 A양을 아파트 바깥 복도로 황급히 끌고나갔다. 다른 장소로 옮겨 2차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홍씨는 A양을 강제로 데려가던 중 한 주민이 다가오자 도망갔다. 홍씨는 승강기 앞에 설치된 CCTV에 얼굴 등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홍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9월 초에도 여중생을 강제추행해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만기출소하는 등 지난 10년간 5건의 동일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홍씨는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뒤에도 법적인 감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제도가 범행 후 1년이 지난 2008년 9월에야 시행됐기 때문이다.

홍씨는 또 성범죄자 재범 교육을 받아 신상정보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08년) 전까지는 재범교육을 받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홍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파트 CCTV에 찍힌 성추행 현장. 범인이 여중생을 계단위로 데리고 가려다 격렬히 반항하자(위) 뒤에서 안고 강제로 끌고 나가고 있다(아래).

여중생 살해 김길태 구속

부산지법 "재범우려 있다"

김씨 "할 말 없다"… 부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12일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는 김길태(3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와 함께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길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렸다.

실질심사는 영장 담당 판사의 연수 문제로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가 주재했으며 김씨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사가 대동했다.

실질심사에서 김씨는 이양 사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올해 1월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서도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는 바람에 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났다.

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30분가량 김씨를 면담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서 "판사의 질문에 당사자가 '할 말 없다'고 말하면서 심사가 금방 끝났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부산 사상경찰서 조사실에서 나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호송차를 탑승, 검찰로 이동했다. 경찰은 검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김 씨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

회색 상의에 검은색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은 김씨는 검거될 때보다 다소 말끔해졌지만, 면도를 못해 수염은 여전히 덥수룩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김 씨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으며 그 위에 다시 포승으로 묶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청 구치감 주변에 1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김길태가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런 전력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적용한 그에 대한 혐의는 '강간살인'이며 또 올해 1월 저지른 범행으로 '강간치상' 혐의도 포함됐다.

강간살인은 고의로 살해했다는 뜻으로 현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소 20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사형까지다.

/연합뉴스

나운찬 〈8060〉 김종두

건널목서 열차와 충돌 승용차 운전자 숨져

12일 낮 12시30분께 여수시 화장동 군장마을 앞 군장건널목에서 정모(60)씨가 운전하던 '전남32나97××호' 스펙트라 승용차가 서울 용산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정씨가 숨졌다.

경찰은 "차단기 사이에 차량이 끼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건널목 정보분석장치 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檢, 사행성게임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2일 오전 대검 조직범죄과장과 전국 18개 검찰청 강력전담부장, 사행성게임 단속 전담 검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사행성게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사행성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적발해 처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엑스포 앞두고 숙박업소 일제 점검

다음달 2일부터 5월9일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앞두고, 광주시가 관내 숙박업소 91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광주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객실과 침구 등 청결상태 ▲욕실과 음용수 수질 등 위생관리 실태 ▲환기·조명 상태 ▲위생교육 이수 여부 ▲영업신고증과 요금표 게시 여부 ▲숙박요금 적정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적 수치심 일으키면 성추행"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건강검진을 이유로 여자 초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없었다 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 이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모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수지침술 등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며 12세 박모양 등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적 동기 등 주관적 요소보다 피해자의 연령, 주변 상황 등 객관적 여건을 고려해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광엑스포 자원봉사단 발대 1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 광주시 자원봉사박람회' 개막식에서 광주세계광엑스포 자원봉사단원들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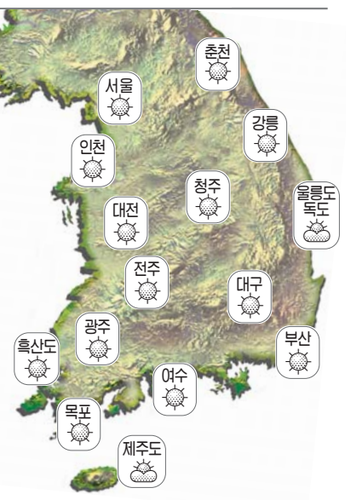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7분 / 해짐 18시 38분 달뜸 05시 10분 / 달짐 16시 21분

포근한 주말 황사 습격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오전에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광 주	맑음	3/15℃
목 포	구름조금	3/14℃
여 수	구름조금	5/12℃
완 도	구름조금	3/14℃
구 례	맑음	1/15℃
해 남	구름조금	1/15℃
장 흥	구름조금	1/15℃
고 흥	구름조금	3/14℃
순 천	구름조금	3/15℃
영 광	구름조금	2/14℃
진 도	구름조금	3/15℃
전 주	구름조금	1/13℃
남 원	맑음	2/13℃
흑산도	구름조금	4/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서~북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관심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0:39 13:15	06:06 18:37
여수	08:15 20:12	01:46 14:1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날 씨						
최저/최고	6/17	10/12	4/9	0/12	2/11	3/12

휴일 밤부터 많은 비

강한 바람 동반

주말인 13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다. 휴일(14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15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14일 밤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고 12일 예보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0~5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다.

휴일인 14일 광주·전남은 점차 구름이 많아져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6~17도, 바다의 물결은 1~3m로 비교적 높게 일겠다.

15일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추락 전투기 기체결함 없었다"

공군, 조종사 비행착각·전투기간 충돌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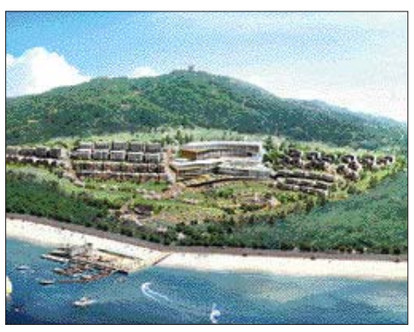
공군은 지난 2일 발생한 F-5 전투기 2대의 추락 사고 당시 기체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수거한 추락 전투기 잔해와 각종 교신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기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비행착각(vertigo)으로 구름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산자락에 추락했거나 전투기 간 충돌 가능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소속 F-5E/F 전투기 2대가 전투 기동훈련 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에 추락해 해남출신으로 공사 38기를 수석졸업했던 오충현 대령 등 3명이 순직했다.

/연합뉴스



해남 땅끝에 7만3천㎡ 휴양 리조트

1천억원 들여 2012년 7월까지

해남군 송지면 땅끝 관광지에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휴양 리조트〈조감도〉가 건설된다.

해남군은 송지면 통호리 일대 7만 3천232만㎡ 부지에 총 사업비 1천80억원이 투입되는 엔코리조트 조성사업이 이달 말께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업체인 태성종합건설㈜이 시공하며, 사업비는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엔코리조트에는 컨벤션 센터와 삼림욕장, 스파 등이 함께 들어서는 콘도형 빌라촌(267가구)으로 전남 서남권에서 가장 큰 휴양단지로 땅끝 관광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카드 슬쩍 술값 휴대전화 통보에 덜미

쌍나팔

○…20대 헬스트레이너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현금카드로 몰래 술값을 계산했다가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로 통보되는 바람에 덜미.

○…광주동부경찰은 12일 함께 어울리던 여성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 술값 12만원을 결제한 오모(24·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를 절도혐의로 입건.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박모(여·22)씨 등 8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결제했다가 이 사실이 박씨의 휴대전화로 통보되는 바람에 들통.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오씨는 "휴대전화로 실시간 결제 내역이 통보될 줄은 몰랐다"며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